

## 『그리스도교 교양』 IV권에 나타난 교사의 윤리

신 경 수\*  
승실대학교

---

### 【요약】

---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수사학의 목적을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둬으로써 수사학을 교수법으로 전환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에서 연설가는 교사의 역할 중에서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연설가는 교사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의 성품이 수사적 기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고전 수사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모두 연설가의 윤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고전 수사학이 연설가의 윤리를 설득을 목표로 신뢰할만한 인물로 보이는 데 치중하는데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삶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사의 윤리를 강조한 이유는 진리교육이라는 새로운 수사학적 환경에 의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진리라는 목적과 신적 사랑의 질서에 의해 구조화한다. 그는 플라톤의 위계적인 세계관을 수용하여 인간의 삶의 목적과 교육의 올바른 목적을 행복 자체로 규정한다. 그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질서(ordō amoris) 안에서 행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대의 도덕 철학 전통인 사주덕을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재해석한다. 그는 사주덕의 순서를 바꾸어 주요한 덕, 즉 절제와 용기, 정의와 지혜를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전환한다. 그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교육 목적은 사랑의 질서에 자유교과가 순응할 때만 도달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르침은 신의 진리와 신적 행복, 사랑의 질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주제어: 수사학, 교수법, 사랑의 질서, 자유교과, 윤리

---

---

\* 승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acts29c@naver.com

## I. 서론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의 가르침에 대한 논의는 『고백록』은 물론이고 초기 대화편인 『질서론』(*De ordine*, 386)과 『교사론』(*De magistro*, 389)에서 전개되며, 그밖에도 다양한 설교와 해설서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 중 가르침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저작은 『그리스도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 397-426)이다. 『질서론』은 신적 질서 안에서 자유교과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개별 교과의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7자유교과의 정당화에 치중한다. 『교사론』의 경우는 언어의 한계를 논함으로써 인간 교사보다는 신적 교사인 내면의 교사의 중요성에 중요성을 둔다. 반면 『그리스도교 교양』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는 언어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의 체계와 교사의 훈련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로써 『그리스도교 교양』은 중세 교육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수사학의 목적을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둠으로써 수사학을 교수법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교수법으로서의 수사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모호한 것을 명료하게 하는 가르침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sup>1)</sup>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에서 연설가는 교사의 역할 중에서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연설가는 교사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추구함으로써 고전 수사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교사의 윤리를 성립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의 성품이 수사적 기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평에서 토핑은 고전 수사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실함에 대한 고집, 즉 기독교 교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있다고 강조한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교양』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에서 교사의 윤리적 특성의 근거와 구조를 탐색하는 데 있다.

고전 수사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모두 연설가의 윤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고전 수사학이 연설가의 윤리를 설득을 목표로 신뢰할만한 인물로 보이는 데 치중하는데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삶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연설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설득 요소

1) *De doctrina Christiana*, IV. 26: 이하 각주에서 DDC로 표기함

2) R. N. Topping, *St. Augustine*(London: Bloomsbury, 2014), p.57.

를 설정했다. 그에 따르면, 설득의 세 가지 요소는 연설의 논리적 일관성인 로고스(logos), 청중의 감정에 대한 고려인 파토스(pathos), 연설가의 신뢰성으로서 에토스(ethos)이다.<sup>3)</sup>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대 수사학 교사들은 때때로 마치 연설가의 주요 관심사가 청중에게 선하게 보이도록 하고 신뢰할만한 에토스를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 수사학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설가들은 선한 존재보다는 선하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론 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연설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설득적 상황에서는 바른 의도와 정의를 위한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sup>4)</sup>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체의 장엄함보다 교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진실성, 즉 언행의 일치이다. 따라서 교사는 반드시 삶의 정직성이 수사적 기교의 부족을 충분히 보충해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sup>5)</sup>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가르침은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사랑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신을 향한 사랑의 차원에서 구조화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전 수사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거부하고 교사에게 절대적 윤리를 요구하게 된 것은 진리교육이라는 새로운 수사학적 환경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교사는 진리를 전달하고 청중의 내적 회심을 촉발해야 하므로 평판뿐 아니라 선한 삶 자체를 중요시해야 한다.<sup>6)</sup>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윤리적 측면은 진리라는 목적과 신적 사랑의 질서에 의해 구조화된다. 그에게는 신을 향한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윤리적 삶이란 불가능하며, 선한 교사라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연구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며, 특히 그의 수사학을 교육적 관점에서 탐구한 논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문영식<sup>7)</sup>의 경우,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윤리적 측면을 탐색하고 있지만, 기독교수사학의 관점에서 설교자의 윤리로 접근할 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동안 『그리스도교 교양』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윤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을 통해 어떻게 가르침의 방법을 구성하는지 살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상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 자유교과와 수사학의 학문적 위치를 탐구한 후, 마지막으로 진리의 전달 체계로서 수사학의 절대적 윤리의 필요성과 진리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윤리적 자격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3) *Rhetorike*, 1356a.

4) *De institutione oratoria*, XIII, 1. 37.

5) *DDC*, IV, 27. 59.

6) *DDC*, IV, 28. 61.

7) 문영식,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기독교사회윤리』제15집(서울: 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 II.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치는 방법의 형성

### 1.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세 연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들은 바로와 키케로, 플라톤과 암브로시우스뿐만 아니라 제2 소피스트와 빅토리누스 등 여러 학파와 학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결과물이다. 수사학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사상 위에 그리스·로마의 이론들을 적용시킨다.<sup>8)</sup> 『그리스도교 교양』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은 키케로와 플라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들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수법으로서 학문적 체계를 정당화하고 자유교과 및 수사학을 진리에 봉사하는 위치에 배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고전 수사학과 구별되는 절대적 윤리를 지향하는 수사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케로와 플라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 수사학의 체계를 수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당대 수사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키케로의 연설가의 의무 개념과 문체 개념을 통해 자신의 수사학의 학문적 정당화를 시도한다.<sup>9)</sup> 키케로는 연설가가 가르치고(*docere*) 기쁘게 하고(*delectare*), 감동을 주어야(*flectere*)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연설가는 무엇인가를 촉구할 때 정보를 알려주려고 가르쳐야 하며 주목을 끌기 위해 청중을 즐겁게 해야 한다. 또한 연설가는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청중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연설가의 의무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그는 키케로가 가르치는 데는 진술체(*stilus tenuis*), 기쁘게 하기에는 중용체(*stilus medius*), 감동을 통한 설득에는 장엄체(*stilus gravis*)를 사용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수용한다.<sup>11)</sup> 반면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연설가의 의무 중에서 가르침을 제일 상위에 두며, 모든 문체가 가르침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키케로 수사학과 구분된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진리론을 수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설의 일차적인 수준은 논거의 발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수사학이 상대적인 논거를 지향하는 데 반해, 그의 수사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에 따르면, 진리는

8) Craig R. Smith, *Rhetoric & Human Consciousness*(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3), pp. 163-6 참고.

9) James J. Murphy,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New Jersey: Hermagoras Press, 2003), p.236.

10) *De Orator*, 69. 101.

11) *DDC*, IV. 7. 17-7. 18; 17. 34-18. 37.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진리관은 플라톤에게서 온 것이다.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출생 이전에 이미 형상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습이란 인간이 이러한 잠재적인 지식을 상기하는 과정일 뿐이다.<sup>12)</sup>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신적 조명론은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의 종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에서 진리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3)</sup>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그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간 교사의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불완전한 기호(*signa*)를 통해 신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교사는 자유교과와 성경으로 훈련되어야 한다.<sup>14)</sup>

셋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표본을 따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수사학 이론의 가르침의 표본으로서 성경과 기독교 초기 문서를 참고한다. 그가 본래 기독교 학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탐구하는 수많은 설교를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상상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큰 상은 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가 그리스도처럼(*imitatio Christi*)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imagines Christi*)으로서 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했던 방식으로 성경구절을 설교의 예시로 사용한 교사들을 칭찬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에토스란 본인이 설교한대로 내용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5)</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와 플라톤, 그리스도를 통해 수사학을 진리와 연결시키고 교수법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키케로 수사학은 논거 발견과 문체의 각색을 통해 다양한 청중들에게 주제를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 이론에서 기술적 측면은 대부분 키케로 수사학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에 대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플라톤의 이론을 적용한다. 플라톤의 영향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물에 대한 연설이 영혼과 믿음 같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연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동기는 진리 전달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방법에 천착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을 진리와 연결시키고 수사학의 절대적 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이다.

12) Gareth B. Matthews, "Knowledge and Illumina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edit. by Stump, Eleonore · Kretzmann, Norman(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125.

13) *De magistro*, 10. 32.

14) *DDC*, IV. 16. 33.

15) Craig R. Smith, *Rhetoric & Human Consciousness*, p.173.

## 2. 수사학의 교수법으로의 전환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감독으로 임명된 지 3년 후인 397년에 『그리스도교 교양』 1-3권을 집필하고, 이후 426년에 4권을 완성한다. 이 저작은 원숙한 작품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일생의 연구와 연설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sup>16)</sup> 아우구스티누스는 1권에서 『그리스도교 교양』의 집필의도를 제시한다. 그것은 깨달아야 할 것을 발견하는(*inveniendi*) 방법과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proferendi*)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교양』 1권-3권은 깨달아야 할 것을 발견하는(*inveniendi*) 방법으로서 해석학에 집중되어 있고, 4권은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proferendi*) 방법으로서 수사학을 다룬다.<sup>17)</sup>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수사학은 교수법의 범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에서 연설가는 교사의 역할 중에서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연설가는 교사와 차이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 서문에서 교사가 자신의 임무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일반교육,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가르침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밝힌다. 그는 교사에게 유익한 안내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연설가나 교사가 신의 도움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사가 진리 연구와 진리 전달을 위해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18)</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발견과 진리 전달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그리스도교 교양』 1권과 2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 해석에 관한 기본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모든 교양은 자연의 대상인 사물(*res*)이나 기호(*signa*) 중 하나와 관련된다. 기호는 자연적이거나 관습적이고, 문자적이거나 비유적이며,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호한 것이다. 그는 성경의 많은 사물들이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는데, 신은 인간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 이를 행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들은 종종 무가치해 보이며 비유적인 언어는 독자를 가르치고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로마의 문학과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 자연대상, 수, 음악, 역

16) George A.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267.

17) *DDC*, IV, 1.1

18) Thomas M. Conley, *Rhetoric in the European Tradi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75-6

19) *DDC*, II, 6, 7.

사, 과학, 그리고 예술과 공예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는 소피스트의 추론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정의와 구분에 근거하여 논리적 주장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신의 계획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0)</sup> 따라서 수사학의 규칙이 거짓을 믿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지라도 그 규칙들은 또한 참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자애로운 표현으로 관중을 회유하거나 명료한 사실을 들려주거나 다양한 표현법으로 관중을 흥미롭게 또는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은 신이 정한 원칙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기술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sup>21)</sup>

『그리스도교 교양』 제3권은 애매모호한 기호들을 논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문자적 해석이 모호함을 유발할 때 본문이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문자적 해석, 특히 구약에서의 문자적 해석은 자칫 위험하고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신은 그 구절에서 발견되는 무엇이든지 그 이상을 예견할 수 있다.<sup>22)</sup> 학식 있는 독자들은 성경에서 많은 수사적 비유들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 비유들 중 몇 가지는 우화, 수수께끼, 비유, 은유, 역설이라 불리기도 한다.<sup>23)</sup> 3권은 성경의 모호한 것들을 설명하는 티코니우스의 일곱 가지 규칙들을 논하면서 끝맺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섯 번째 규칙 ‘시간론’을 수사적 제유법과 관련하여 논한다.<sup>24)</sup>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은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사학이다. 4권은 여섯 부분으로서 성경의 연설묘사<sup>25)</sup>, 설교에 적용되는 키케로의 ‘연설가의 의무’에 대한 논의,<sup>26)</sup> 세 종류의 문체에 대한 논의<sup>27)</sup>, 연설가의 품성의 역할<sup>28)</sup>, 그리고 간략한 결론<sup>29)</sup>으로 나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의 규칙이 어디서나 학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의 전통적인 네 가지 요소들의 기능을 밝히고 그 규칙들을 간략히 요약한다.<sup>30)</sup> 젊은이들은 수사학을 공부해야하지만, 규칙을 아는 것보다 좋은 본보기를 따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교사는 당시 로마세계의 모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20) DDC, II. 32. 50.

21) DDC, II. 36. 54.

22) DDC, III. 28. 39.

23) DDC, III. 29. 40-41.

24) DDC, III. 35. 50.

25) DDC, IV. 4. 6-11. 26.

26) DDC, IV. 12. 27-16. 33.

27) DDC, IV. 16. 33-26. 58.

28) DDC, IV. 27. 59-30. 63.

29) DDC, IV. 31. 64.

30) DDC, IV. 2. 3.

학문적인 통찰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 세속학교의 문학교사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문학을 해석하는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사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가르치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교양』4권은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proferendi*) 방법, 즉 교수법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 이론이다. 그에게 있어 수사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교수법이다.

### Ⅲ. 사랑의 질서(*ordo amoris*)에 속한 자유교과와 수사학

#### 1. 교육의 목적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위계적인 세계관을 수용한다. 그는 사상 체계에서 사물을 하위 개념에 위치시키며, 관념적인 것을 상위 개념에 위치시킨다. 그에게 있어 사랑과 진리, 아름다움이 상위인 반면, 바위와 나무 같은 물질은 하위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교육의 올바른 목적 또한 행복한 삶(*beatitudo*)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전통에 따라 인간의 행복이 덕의 결과라는 점과 행복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성적 논증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sup>31)</sup>에서 시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폭넓은 목적에 호소함으로써 행복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사색을 시작한다. 그는 『행복한 삶』에서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강조한다.<sup>32)</sup> 그에 따르면, 행복은 다른 것과 달리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기에 목적이 된다.

고대세계에서 행복이 덕의 산물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정이었다.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덕은 영혼의 탁월함이기 때문에 덕이 없는 영혼은 무엇이든 간에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탁월함)에 대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덕은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sup>33)</sup> 따라서 덕은 기능과 관련되고, 기능은 본질적 목적과 관련된다. 대상의 본질적

31) “모든 종류의 지식과 결정이 어떤 선을 추구할진대, 정치학이 추구하는 선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최고선은 무엇인가? 그 명칭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동의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며, 그들은 잘 살면서 잘 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Ethica Nicomachea*, 1095a.

32) *De beata vita*, 2. 10.

목적은 마땅히 그 대상의 유형에 의존한다. 이를테면 말은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면에서 탁월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오렌지 나무는 달콤한 과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합리적이고 매우 복잡한 동물인 인간은 광범위한 덕이 요구된다. 인간의 본성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친절과 절제, 관대함 같은 습관을 필요로 한다.<sup>34)</sup>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행복(*beatitudo*)이라는 목적은 특정 행동과 그것의 근거리 및 원거리 목적 간의 관계를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지배한다. 그는 가장 초기의 저서에서부터 수단과 목적의 차이에 호소한다. 창조된 것들은 사용된다(*uti*). 오직 신만이 향유될 수 있다(*frui*).<sup>35)</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들이 결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대 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점에서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인 헌신과 연구, 논고를 통해 행복한 삶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철학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철학자들이 우리와 이러한 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째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한명 한명은 내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진실 되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은 철학자나 기독교인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sup>36)</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초기 저서에서 불변하는 선이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윤리적 공리로 받아들인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라면 항상 지속하는 것 혹은 행운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사라질 수 있는 소유물들은 항상 실망을 안겨준다. 물질적인 것들은 부패하게 되고, 따라서 결코 최고선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언제나 그것들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과 섞여있으며, 항상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로 덮여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이전 자신의 마음상태를 회상하면서, 불변하는 것의 우월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상기했다. 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33) *Ehtica Nicomachea*, 1106a.

34) *Confessiones*, I, 6, 8.

35) *DDC*, I, 7, 7.

36) *Sermones*, 150, 4.

37) *De beata vita*, 2, 11.

진심으로 나는 당신이 썩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내  
게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sup>38)</sup>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질서에 의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고대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고차원의 덕을 지혜가 아니라 사랑으로 상정한다. 그는 인간이 선의 객관적 질서에 따라 사랑해야만 하지만, 신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사랑을 적절히 질서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랑의 질서(*ordo amoris*)를 무시한다면 도덕적 자기파멸에 이르고 만다.<sup>39)</sup>

## 2. 행복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수사학의 학문적 위치

행복은 고대 그리스나 라틴 전통 혹은 이교도나 기독교인에게도 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임무를 고대 전통의 도덕 철학을 확장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주덕(四主德)을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재해석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유익과 상관없이 정의는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한다. 정의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폴리스에 적용했던 원칙을 영혼에도 적용해봄으로써 영혼이 세 가지 요소인 이성, 기개, 욕망을 갖는다고 주장한다.<sup>40)</sup>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덕 중에서 주요한 네 가지를 선택한다. 지혜는 이성이고, 용기는 기개이며, 절제는 욕망이다.<sup>41)</sup> 영혼의 올바른 질서는 지혜로 파악되어 각각의 요소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고전 전통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일하게 행복의 본성이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행복은 어떤 면에서 덕에 의존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덕들 간의 질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접근은 이 고대의 자료와는 다르다. 그에게 있어 덕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사랑이지 지혜가 아니다. 도덕적 삶의 경우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도덕적 사랑은 최고의 것이며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탁월함, 그리고 영혼의 모든 갈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재작업을 통해 신을 향한 인간의 열망

38) *Confessiones*, VII, 1, 1.

39) *De civitate Dei*, 15, 22.

40) *Politeia*, 435e.

41) *Politeia*, 441d.

의 표현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전통에 따라 덕의 다양성 속에 구조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나, 고대 전통을 확장해 가면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덕에 관하여 완벽한 신적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덕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사랑은 가장 높은 덕이며 신에게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그는 사주덕의 순서를 바꾸어 주요한 덕, 즉 절제와 용기, 정의와 지혜를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전환한다.<sup>42)</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전체적인 통일성과 분명하게 규정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을 상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사랑의 질서에 자유교과가 순응할 때만이 행복이라는 교육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 연구는 단순히 연구할 많은 대상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독학의 길을 따라 기독교인을 인도하고자 주변학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오는 중심 학문이다.<sup>43)</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학문을 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경의 보조자로 규정한다. 그에게 있어 고전 전통의 학문은 신이 태초에 만든 사물들을 면밀히 연구한 산물이다. 그는 성경을 보조하는 학문으로 7자유교과(*artes liberales*)를 선정한다. 자유교과는 3학(*trivium*: 문법, 변증법, 수사학)과 4과(*quadrivium*: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과목은 주로 성경 해설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된다.<sup>44)</sup> 7자유교과의 아래에는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이나 광물학 등 실용학문이 위치한다.<sup>45)</sup> 신체적 표현 기술, 즉 무용과 경주 등은 기독교인이 연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이 기술에서 비롯된 비유적인 말을 사용할 때, 그로 하여금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완전히 무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46)</sup>

기독교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과정에서 기독교 교사의 성경연구와 교육 준비를 중심에 두고 이 중심부 주변에 다른 연구들을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독교인이 세속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지혜롭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이교의 학문에서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기준은 한 가지 목적, 즉 기독교 학생들이 신의 진리를 이해하고 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수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사학 또한 행복이라는 교육 목적과 신의 사랑의 질서에 종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사의 목적, 특히 기독교 교사의 목적은 학생들을 진리

42)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I. 15. 25.

43) George Howi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1969), p.228.

44) 신경수, 「아우구스티누스 7자유교과의 철학적 근거」『철학논총』98집 4호(대구: 새한철학회, 2019), 54쪽.

45) *DDC*, II. 29. 45.

46) *DDC*, II. 30. 47.

를 알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말소리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또 생각보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문적인 연설가의 목적과는 매우 다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고전 수사학자들은 설득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스 문학에서 허용된 부도덕한 사례의 사용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sup>47)</sup> 또한 플라톤조차도 철학 교사가 거짓을 말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쳤다.<sup>48)</sup>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신의 진리와 신적 행복, 사랑의 질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교사는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며 말과 행위에서 진실해야 한다.

#### IV.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절대적 윤리의 필요성

##### 1.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세 가지 의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 4권에서 수사학을 논의하는 것은 2권에서 다른 자유교과에 접근했던 방식과 같은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교과를 중립적인 도구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유교과 중 문법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은 저자의 말이 어떤 목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지시하지 않지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수사학의 경우에도 말하려는 대상이 참이든 거짓이든 혹은 그것이 고상한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상관 없이 어떠한 동기여의 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가 감히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의존하는 진리가 거짓과의 싸움에서 무장하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sup>49)</sup>

수사학의 요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연설가는 자신이 성취하기 원하는 공식적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연설가는 청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확신시키기 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원할 것이다.<sup>50)</sup> 이를 결정한 연설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토핑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에 의해 전수된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고전 수사학의 전통과 매우 유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sup>51)</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적 연설을 다룬 『수사학』에서 연

47) *Confessiones*, I. 16. 25.

48) *Politeia*, 414b.

49) *DDC*, IV. 3. 4.

50) *DDC*, IV. 19. 38.

설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고려사항을 설정했다. 이 세 가지 고려사항은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이다. 효과적인 세 가지 설득 수단은 연설의 논리적 일관성과 청중의 감정 고려, 그리고 연설가의 신뢰성에 상응한다.<sup>52)</sup>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연설가의 말은 가르치고 기쁨을 주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웅변가는 무릇 언변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즐겁게 하며 감동시키기 위하여 발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말이다. 곧이어 덧붙이기를 “가르침은 필요에서 오는 문제이고 즐거움은 매료시키는 것이며, 감동은 승패의 문제다”라고 하였다.<sup>53)</sup>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대로, 말하는 이는 분명 가르치고(docere) 기쁘게 하고(delectare), 감동을 주어야(flectere)한다. 이 필요조건 중 가르치는 것은 담화의 주제와 관련이 깊고, 다른 두 가지는 문체와 관련이 깊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설가의 의무들 중에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설가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원하든 혹은 단순히 찬성을 유도하고 싶은 간에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로고스가 우선권을 갖는 것과 유사하다. 연설가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귀담아 듣지 않게 된다. 기발한 책략과 꾸미기에 탐닉하는 문체는 균형이 결여되어 진지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매사에 신중함을 지닌 고상한 감각이 원칙이다.

연설의 감정적 특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권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파토스와 일치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교사의 목적이 확신뿐 아니라 감동을 주는 데 있다면, 진리는 아름다운 어구로 장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자는 연설가가 자신을 이해했다고 느껴야만 하고, 연설가의 말은 청자가 이미 진리로 믿는 것에 호소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중의 기쁨이 설득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청자는 즐거워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가 사로잡혀 듣도록 만들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감동시킬 수 있다. 청자는 당신이 유쾌하게 말하면 즐거워한다. 그리고 당신이 제시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난하는 바를 미워하고, 추천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감동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로 하여금 반드시 후회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를 후회하고, 당신이 연설에서 제시한 어떤 즐거운 것에 즐거워하고, 당신이 말을 통해 동정해야 할 사람이라고 보여준 자에게 연민을 품으며, 무서운 말로 그들에게서 피하라고 촉구한 이들을 꺼린다면 그는 감동한 것이다.<sup>54)</sup>

51) R. N. Topping, *St. Augustine*, p.55.

52) *Rhetorike*, 1356a.

53) *DDC*, IV. 12. 27.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공적인 연설의 성패는 수사학의 에토스적 측면, 즉 연설가의 신뢰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능변이 오로지 말로 나타난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능변은 보다 중요한 기준들에서 세워져야 하고 그러므로 성취하기 더 어려운 일이다.

## 2. 진리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윤리적 자격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침이 교사의 말보다는 그의 인품과 삶의 태도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토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법이 고전 수사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실함에 대한 고집, 즉 기독교 교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있다고 강조한다.<sup>55)</sup>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사학이 자유교과로서 영원한 행복, 즉 진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질서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와의 연합만이 진정한 수사학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사의 본질적인 진실함은 그가 진리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에게 자연적인 능변을 부여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쏟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sup>56)</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와 연결된 참된 능변은 세속의 연설가의 세련된 수사학과는 대조적으로 간결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진리를 지향하는 교사는 항상 진실하고 소중한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능변으로 말한다.<sup>57)</sup>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선하고 지혜로운 교사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설교’이며 반면에 ‘유창하지만 무의한 말로 가득한’ 사기꾼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학생들 현혹시키고 생각 없이 거짓된 것을 묵인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키케로는 능변이 없는 지혜는 국가에 약간은 도움이 될지라도 지혜가 없는 능변은 자주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sup>58)</sup>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로서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성, 즉 교사의 언행일치에 있다고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항상 성품이 기법보다 우선하며,

54) DDC, IV, 12, 27.

55) R. N. Topping, *St. Augustine*, p.57.

56) DDC, IV, 11, 26.

57) DDC, IV, 11, 26.

58) DDC, IV, 5, 7.

교사는 반드시 삶의 정직성이 수사적 기교의 부족을 충분히 보충해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의 숙련된 가르치는 기술보다는 그의 진실한 성격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sup>59)</sup> 능변은 교사의 자애로운 인품과 온전한 지성을 통해 그의 삶을 본보기로 하여 말하며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청중이 그의 말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들의 선생이자 감독자인 이들의 행동과 비교하여 자신의 악한 삶을 방어하는 이들의 수는 적지 않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입 밖으로 말하기까지 한다. ‘왜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교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교사를 멸시하듯이 그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멸시하기 때문이다.<sup>60)</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단 진리의 권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하는 이의 사생활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임무,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의 일치는 어떤 구두의 웅변보다도 설득에 있어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sup>61)</sup>

수사학에서의 도덕적 특징의 중요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혹은 퀸틸리아누스가 수사학의 에토스에 관하여 말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고대 수사학 교사들은 때때로 마치 연설가의 주요 관심사가 청중에게 선하게 보이도록 하고 신뢰할만한 에토스를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sup>62)</sup> 예를 들어, 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연설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강직한 퀸틸리아누스조차 바른 의도와 정의를 위한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sup>63)</sup>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수사학 교사로 있을 때 이러한 윤리관을 수용했다. 그는 『고백록』에서 황제 앞에서 축사를 낭송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수사학자에게 기대하듯이 수많은 거짓말을 동원하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이들에게서 호평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고백한다.<sup>64)</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다루는 연설가는 이러한 방식의 수사학을 지양해야한다고

59) DDC, IV. 27. 59.

60) DDC, IV. 27. 60.

61) DDC, IV. 29. 62.

62) George A.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270.

63) *De institutione oratoria*, XII. 1. 37.

64) *Confessiones*, VI. 6. 9.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성도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담화에는 인간뿐 아니라 신적 심판자가 존재한다. 더욱이 기독교 교사는 자신의 청중에게 내적 회심을 촉발 하도록 시도하므로 좋은 평판이 중요한 만큼 선한 삶도 등한히 하지 않는다.<sup>65)</sup>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전 수사학의 목표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반해, 그의 수사학은 진리를 수호하고 온전히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중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전달하는 내용이 손상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에서는 진리의 변질이 있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 수사학은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한에서 청중에게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에 따르면, 말재주로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말로 다투는 것은 이득도 없으면서 청중을 파멸시킬 뿐이다.<sup>66)</sup>

## V. 결론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은 두 가지 기둥을 통해 성립된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이 교사의 훈련 없이는 성공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기술에 관하여 교육받아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의 훈련, 즉 인적 자원으로부터의 훈련이 필요하며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문체의 장엄함이 아니라, 바로 교사의 삶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진실성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사의 윤리를 강조한 이유는 진리교육이라는 새로운 수사학적 환경에 의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진리라는 목적과 신적 사랑의 질서에 의해 구조화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위계적인 세계관을 수용하여 인간의 삶의 목적과 교육의 올바른 목적을 행복 자체로 규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질서에 의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가장 고차원의 덕으로 지혜가 아니라 사랑을 상정한다. 그

65) DDC, IV. 28. 61.

66) DDC, IV. 28. 61.

가 보기에, 인간은 선의 객관적 질서에 따라 사랑해야만 하지만, 신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사랑을 적절히 질서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질서(*ordo amoris*) 안에서 행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대의 도덕 철학 전통인 사주덕을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사주덕의 순서를 바꾸어 주요한 덕, 즉 절제와 용기, 정의와 지혜를 사랑의 네 가지 형식으로 전환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질서에 자유교과가 순응할 때만이 행복이라는 교육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고전 전통의 학문은 신이 태초에 만든 사물들을 면밀히 연구한 산물이다. 그는 성경을 보조하는 학문으로 3학(문법, 변증법, 수사학)과 4과(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로 이루어진 7자유교과를 선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르침은 신의 진리와 신적 행복, 사랑의 질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공적인 연설의 성패는 수사학의 에토스적 측면, 즉 연설가의 신뢰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사의 임무, 즉 가르침과 행동의 일치는 설득에 있어 훌륭한 웅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이 기술적인 체계와 학문적인 지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의 윤리와 수사학의 기술 모두에 공을 들인다. 그는 플라톤학파를 예로 들면서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사가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하고 고유한 사용을 위해 그것을 점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7)</sup> 그에 따르면, 신앙이 기독교인에게 명료한 방향 감각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사로 하여금 배움의 노고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학습의 필수 조건은 목적에 집중하여 숙련된 훈련을 하는 것이며, 학습은 오랜 노력을 한 이후에만 완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가 학생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하는 교사는 진리 자체를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그에 합당한 교사의 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67) DDC, II, 40, 60.

## 참고문헌

- 문영식,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기독교사회윤리』제15집(서울: 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 신경수,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교육론에서 권위에 의한 삶의 가치」, 『현상과 인식』 42집 3호(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자유교육의 인식론적 근거」, 『철학논총』89집 3호(대구: 새한철학회, 2017)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7자유교과의 철학적 근거」, 『철학논총』98집 4호(대구: 새한철학회, 2019)
- 유재봉, 「종교적 자유교육론 연구-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26집 2호(서울: 한국교육사학회, 2004)
- 한석환, 「아우구스티누스와 수사학」, 『철학연구』 116집, (대구: 대한철학회, 2010)
- Arnold, Duane W. H., *De doctrina christiana: A classic of western culture*, Nor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 Augustinus, *Against the Academicians · The Teacher*, Trans. by Peter King,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5.
- \_\_\_\_\_, *De Doctrina Christina*, Corpus christinanorum, serieslatina X X XII, Turnhout, Belgium, 1962.
- \_\_\_\_\_, *Sermones,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episcopi Opera omnia,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e congregatione S. Mauri*, Paris, 1836.
- \_\_\_\_\_, *The first catechetical instruction*, Trans. by Joseph P. Christopher, New York: Newman Press, 1946.
- Conley, Thomas M., *Rhetoric in the European Tra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Christopher, Joseph P., *The first catechetical instruction*, New York: Newman Press, 1946.
- Enos, Richard Leo Et al., *The Rhetoric of St. Augustine of Hippo*,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 Howie, Georg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 Teachers College Press, 1969.
- Kennedy, George A.,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enyon, Erik, "Augustine and the liberal arts", *Arts &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12(1)(SAGE Journals, 2012)
- Matthews, Gareth B., Knowledge and illumination, Ed. by Eleonore Stump and Norman Kretzman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urphy, James J.,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New Jersey: Hermagoras Press, 2003.
- Roberts, David E., "Augustine's Earliest Writings", *The Journal of Religion* 33(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5)
- Stump, Eleonore · Kretzmann, Nor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in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Sullivan, J., "Augustine and Liberal Education", *Heythrop journal*, 42(3)(New Jersey: Blackwell Publishers, 2001)
- Topping, R. N., *Happiness and Wisdom: Augustine's Early Theology of Education*,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2.
- \_\_\_\_\_, *St. Augustine*, London: Bloomsbury, 2014.

---

원고접수일: 2019년 12월 2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7일

연구자소개: 신경수

① 전공: 서양 중세철학, 교육철학 / 소속과 직위: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② 관심영역: 교육철학, 종교철학

③ 주요논저: 「아우구스티누스 자유교육의 인식론적 근거」, 「아우구스티누스 7자유교과의 철학적 근거」, 「아우구스티누스 자유교육론에서 권위에 의한 삶의 가치」

④ E-mail: acts29c@naver.com

---

Abstract

The Ethics of Teachers in the Rhetoric  
of *De doctrina christiana*

Shin, Kyungsoo  
Soongsil University

Augustine converted rhetoric into teaching methods by putting the purpose of rhetoric in teaching truth in *De doctrina christiana*. In Augustine's rhetoric, the speaker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teacher's role. He is no different from a teacher. Augustine argues, however, that teachers' character takes precedence over rhetorical techniques. Both classical rhetoric and Augustine rhetoric emphasize the ethics of the speaker. But while classical rhetoric focuses on what appears to be a credible figure with the aim of persuading the speaker's ethics, Augustine emphasizes the value of good life itself. Augustine emphasized the ethics of teachers because of a new rhetorical environment called truth education. Augustinus structure rhetoric by the purpose of truth and the order of divine love. Augustine embraces Plato's hierarchical world view, defining the purpose of human life and the right purpose of education as happiness itself. Augustine thinks that all things have access to happiness within the order of love, and reinterprets the ancient moral philosophy tradition of the four cardinal virtues in four forms of love. He changes the order of the four cardinal virtues and converts the main virtues, namely moderation and courage, justice and wisdom, into four forms of love. According to him, the educational purpose of happiness can only be reached when the free textbook conforms to the order of love. Teachers should never tell lies because teaching to Augustine is related to the truth of God, the divine happiness, and the order of love.

**Key words** : rhetoric, teaching methods, order of love, liberal arts, ethics